

정밀화학 기술 10건 이상 해외유출

지경부, 5년간 203건 중 11건으로 4위 ... 전기전자 1위에 생명공학 5위

최근 5년간 국내 정밀화학 산업기술이 10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10월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시도가 2004-09년 총 203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국가 전략산업인 전기전자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30건), 정밀기계(2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정밀화학은 11건으로 4위, 생명공학은 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유형은 전직·현직 직원에서 국내외 협력기업과 해외법인 및 인수합병(M&A)·합작투자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했고, 방법으로는 전직·현직 직원의 금전적 매수가 전체의 51.7%(10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 유출 동기는 개인 영리(97건)와 금전적 유혹(63건)이 79%로 압도적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4>